

# '절정의 골 감각' 손흥민, 시즌 15호 골 사냥 나선다

### 3월에만 4골 2도움... 토트넘, 31일 루턴타운과 홈경기 PSG 이강인도 다음달 1일 마르세유와 원정 경기 출전

태국과 2연전에서 A매치 45, 46호 골을 터뜨린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소속팀에 복귀해 시즌 15호 골을 정조준한다.

토트넘은 31일 오전 0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루턴 타운과 격돌한다.

이 경기는 3월 A매치 기간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맹활약한 손흥민이 영국으로 돌아가 맞이하는 첫 번째 일정이다.

손흥민은 '황선홍호'의 일원으로 태국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3, 4차전을 치렀다.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소화한 손흥민은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전반 42분 선제골을,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두 번째 경기에서는 후반 9분 2-0으로 달아나는 추가 골을 넣었다.

특히 태국 원정 경기에서 나온 득점은 한국 축구 차세대 간판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합작한 골이라 손흥민에게는 뜻깊었다. 득점 직후 전진 패스를 배달한 이강인과 얼싸안으며 그간의 아픔을 씻어냈음을 축구 팬들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두 선수는 한국 축구를 뒤흔든 '하극상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도중 팀 내 최고 인기 스타인 둘이 충돌한 사실이 알려져 전 국민에 큰 충격을 줬고, 이후 한국 축구는 격동 속으로 빠져들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이강인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라고 치켜세워 축구 팬들을 흐뭇하게 했다.

게다가 그는 각각 1-1 무승부, 3-0 패스로 끝난 태국과 연전을 통해 임시 사령탑을 맡았던 황선홍 감독(103경기·50골)과 격차도 좁였다. 손흥민은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황 감독에 이어 우리나라 역대 A매치 득점 3위(46골)다.

국가대표팀에서 낭보를 잔뜩 안고 돌아온 손흥민은 공식전 3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특히 이달 들어 득점 감각이 예리해진 상태다.

27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28라운드 애스턴 빌라전 2골 2도움을 쓸어 담은 손흥민은 소속팀, 대표팀을 합쳐 3월 치른 5경기에서 4골 2도움을 폭발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을 통틀어 14골 8도움을 기록 중이다.

1골만 더 추가하면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순위에서 단독 5위가 된다. 현재 159골을 넣어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와 공동

5위다. 기본 좋게 A매치 기간을 마무리한 이강인도 이제 소속팀에 집중한다.

파리 생제르맹(PSG)은 다음 달 1일 오전 3시 45분 올랭피크 마르세유와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2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아시안컵 이후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강인도 최근 공격포인트 생산 능력이 올라왔다.

국가대표팀 소집 직전 치른 리그 경기에서 시즌 4호 골을 폭발한 이강인은 선발로 나선 태국과 2차전 손흥민의 득점을 도운 장면을 제외하고도, 수차례 날카로운 침투패스를 배달해 황선홍호의 공격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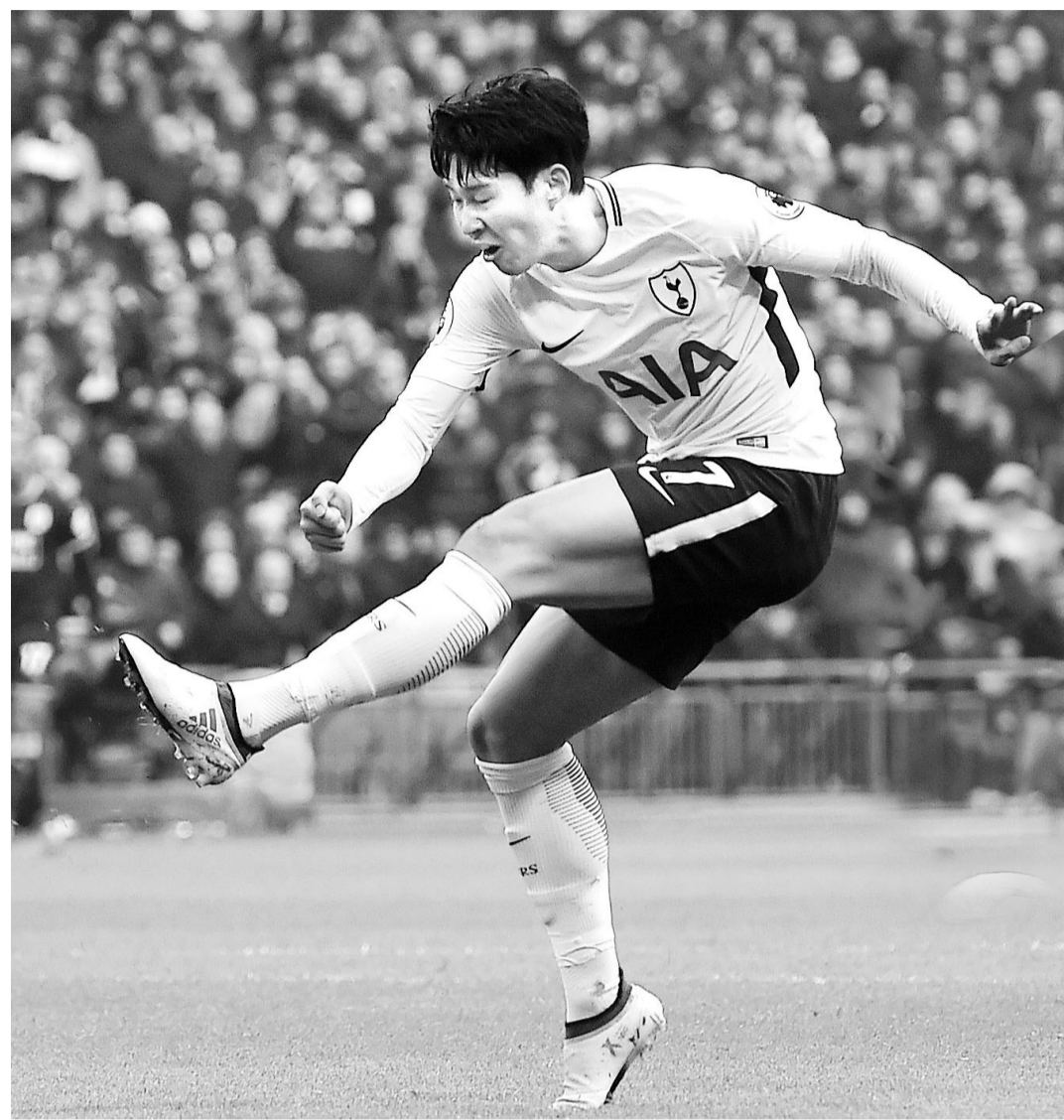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한국 축구 수비의 핵 김민재도 31일 오전 2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도르트문트(이상 독일)와 분데스리가 27라운드 홈 경기 출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김민재가 선발로 뛰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반기 뮌헨 수비진의 줄부상 속에 불박이 센터백으로 자리 잡은 듯했던 김민재는 최근 토마스 투렐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에릭 다이아와 경쟁에서 밀린 김민재는 최근 소속팀에서 공식전 3경기 중 2경기에서 벤치만 달렸고, 1경기에서는 15분만 소화했다.

태국과 2차전 무실점을 이끈 김민재는 경기 후 취재진에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훈련장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게으르지 않게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 '세계 1위' 세플러, 마스터스 우승 확률 우즈 이후 최고

### 스포츠베팅업체 BetMGM 집계 배당률 +450으로 압도적 1위 임성재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아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사진)의 마스터스 우승 확률이 대회가 다가올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베팅 업체 BetMGM 스포츠북이 28일(한국시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셰플러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했을 때 배당률은 +450으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온 램(스페인)의 배당률 +1000을 크게 앞섰다.

배당률 +450은 100달러를 베팅했을 때 450달러와 베팅금 100달러를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2013년 타이거 우즈(미국)가 마스터스를 앞두고 +350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배당률, 즉 가장 높은 우승 확률이다.

작년 여름 셰플러의 배당률은 +950이었지만, 올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전에는 +850,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전에는 +550으로 낮아졌다.

셰플러가 아널드 파머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연달아 우승하면서 4월 11일 개막하는 마스터스를 앞두고 +450까지 내려갔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셰플러와 매길로이, 램을 제외하고 우승 확률이 높은 선수는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조던 스피스(미국·이상 +1800), 젠더 쇼플리(미국)·브룩스 켈카(미국·이상 +2000) 등이었다.

임성재의 배당률은 +5500으로, 한국 선수 중에는 우승 확률이 가장 높았다.

이번 시즌 필드에 복귀한 우즈의 배당률은 김시우·필 미켈슨(미국), 니콜라이 호이코르(덴마크) 등과 같은 +10000이었다.

/연합뉴스



# "동료서 적으로" 손흥민 vs 김민재 런던서 격돌

### 8월 11일 토트넘-뮌헨 친선전 케인·다이아와 맞대결도 기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창'과 '방패'가 유럽에서 맞부딪친다.

한국 대표팀 '캡틴'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홉스퍼(잉글랜드)와 '절기둥'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27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두 팀의 프리시즌 친선전 일정을 공지했다.

토트넘과 뮌헨은 한국 시간으로 8월 1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맞붙는다.

이에 따라 대표팀 최전방과 최후방을 책임지며 호흡을 맞춰온 손흥민과 김민재가 소속팀 유니폼을 입고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뮌헨에는 토트넘 출신 스타가 둘이나 뛰고 있어 더 흥미로운 대치이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동고동락하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다 합작골(47골) 진기록을 쓴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이 지난 여름 뮌헨으로 이적해 변함없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역시 토트넘에서 뛰던 센터백 에릭 다이아도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뮌헨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한편, 뮌헨은 이번 프리시즌에 한국을 방문해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에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 전남 김행직·최호일,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우승

전남당구가 올해 첫 전국대회인 '제12회 국토정중앙배 2024 전국당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군청 김행직과 전남당구연맹 최호일은 지난 25일 이번 대회 첫날 경기로 진행된 남자 3쿠션 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함께 팀을 이룬 김행직과 최호일은 결승에서 김동룡(서울당구연맹)-박정우(경동부설방통고)를 상대로 경기를 펼쳤다.

경기 초반에는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김동룡-박정우가 흐름을 타면서 9이닝에서 4-8로 점수가 벌어졌다. 11이닝에 5-10까지 점수차가 났지만 김행직-최호일이 16이닝에서 10-10동점으로 성공했다. 18이닝에 12-11로 역전해 성공한 이들은 22이닝에 6득점의 장타를 기록한 뒤 최종 32이닝에서 30-21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남당구연맹 박정현은 여자3쿠션 캐롬에서 3위에 올랐다.

박정현은 8강에서 성일정보고 김소원을 만나 25-20으로 승리한 뒤 준결승 상대 서울당구연맹 강영



진도군청 김행직(왼쪽), 전남당구연맹 최호일이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남자 3쿠션 복식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심에 23-25로 패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조호석 전남당구연맹 회장은 "어려운 훈련 여건 속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25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뎀글부대
2관	파묘, 다시 김대중-함께 합시다
3관	고질라 X 공: 뉴 엠파이어
4관	파묘, 1980
5관	뎀글부대, 드림쑹3 [위드키즈]레빗스쿨 2: 부활절 대소동
6관	뎀글부대
9관	파묘, 1980
7관	썬: 파트2,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까운 것들
8관	썬: 파트2,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까운 것들
8관	썬: 파트2,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까운 것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광주예술의전당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월)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